

“애환을 어루만져야 발전한다”

기록적인 폭우 ‘아찔했던 순간’

익산 송림사 지광 스님, 이리불교대 설립·청소년포교

남원 승려사, 집중호우로 큰 피해... 인명피해는 없어

익산 송림사는 올해 초 불교문화 사업단에서 지정하는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됐다. 이후 익산 송림사 지광 스님은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광 스님이 부임하던 1987년 무렵 송림사는 거의 폐찰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우후루는 지붕이 풀이 무성하고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각 전각마다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지광 스님은 10년 단위의 중창불사 원력을 세우고 일주문과 안심당, 종각, 산신각, 해우소를 신축하고 사찰 주변에 예쁜 와담을 쌓아 도량을 정비했다.

올해는 템플스테이 수련관인 적묵당을 완공해 비로소 정돈된 사찰의 면모를 갖추고 20년에 걸친 중창불사를 마무리했다.

조계종 제9·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며 종단의 발전에 기여해 온 지광 스님은 1990년경 지역스님, 불자들과 함께 익산지역 불자들의 교육과 포교를 위해 이리불교대학의 설립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 1992~2008년 익산 사람

연합회회장을 맡아 익산 지역에서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를 원만하게 이끌어왔다. 여산 육군 부사관학교 법당신축과정에서도 지역스님들과 불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스님은 청년불자 양성에도 앞장서 왔다. 스님은 청년들을 키워야 한다는 원력으로 10년 동안 원광대학교 대불전 지도법사를 맡아 청년들을 지역의 특산물 불자로 키워내기도 했다. 지도 법사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불자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숙식을 제공하는 등 물질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중 사법고시에 합격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는 학생이 2명이나 된다.

또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가정과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고 하니 스님을 포교제일 부루나 존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의 화합과 종교간의 갈등 대립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익산 송림사 지광 스님은 송림사를 익산지역의 대표적인 포교도량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는 스님은 올 여름에는 인근 함열성당 당의 초·중등 청소년 학생 50여 명이 송림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종교교간의 화합과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스님은 군산 익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된 만큼 송림사를 군산과 익산지역에 아우르는 전통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수행과 교화, 교육의 공간으로 거듭나고도 준비 중이다.

또 평소 지역 사찰은 지역민들의 애환을 어루만지며 주변 마을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 스님은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어울리는 템플스테이를 계획하고 있다.

올 한 해를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수정 보완하는 기간으로 삼아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조성된 람산 돌레길과 함께 국화축제, 서동축제, 응포 곰개나루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해놀이 해맞이 축제 등을 연계한 템플스테이를 계획하고 있다. 스님은 송림사를 수행과 교화, 교육과 산사체험이 함께하는 익산지역의 대표적인 포교도량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8월 13일 남원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남원 승려사 뒷산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발생했다. 흩더미가 승려사 요사채를 덮쳐 관계자들이 긴급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 함께 토사가 밀려들어 요사채를 덮쳤다"며 "대중스님들은 남원시내의 선원사로 긴급 대피해 모두 안전하다"고 말했다.

사고 다음날인 14일부터 선원사 운천 스님 등 스님들과 승려사 신도, 남원불교신학단체 연합회 불자, 긴급 동원력이 내려진 남원시청 직원, 인근 군부대 장병 250여 명이 굴삭기 5대, 트럭 3대 등 중장비를 동원해 긴급 복구작업에 나서 뿌리째 뽑힌 나무들과 함께 약 1.8m정도 쌓인

토사를 제거하는 한편 2차 피해에 대한 긴급 대비에 나섰다.

승려사 뒷편 만행산은 최근 수년 동안 산 불교와 석산개발로 몸살을 앓아왔으며, 최근 조성된 대형 묘지공사로 인한 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승려사에서는 전복지역에서 완주 위봉사와 함께 2곳 뿐인 비구니 스님 선방으로 이번 피해에 대한 빠른 대책이 요구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철도기관사들의 아름다운 이웃돕기

광주철도공사 연등회, 장애인어린들과 야유회

불자철도기관사들이 바쁜 업무와 무더위에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불자 철도기관사들의 모임인 광주철도공사 광주본부 연등회(회장 임천택)는 8월 10일 광주 지평동 현비동산 장애인어린들과 선생님 36명과 함께 화순 백산인 물썰매장으로 물놀이를 떠났다.

바깥나들이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아들은 이날 연등회원들과 함께 물썰매타기, 풍장에서 물놀이, 썰매타기 등 다양한 물놀이를 만끽했다. 물놀이 중간중간에는 통닭, 김밥, 라면 등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날 봉사활동을 펼친 기관사 회원 15명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열차 운행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해 야외 나들이에 동참했다.



광주철도공사 광주본부 불자 철도기관사들의 모임인 연등회는 8월 10일 장애인어린들과 함께 야외 나들이를 다녀왔다.

임천택 회장은 "불교신학단체가 자원봉사에 모범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소외되거나 신체적 자유롭지 못한 이웃에게는 더욱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연등회는 평소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

치는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있다. 대해노인복지센터(센터장 무진) 향림사에서 운영하는 우산복지관에서 노인인들이 행사, 목욕봉사, 노인위안잔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비동산에는 정기적인 재정후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다양해지는 청소년 프로그램

순천 파라미타, 순천시 문화존 개최

최근 청소년을 위한 불교계의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고 있어, 청소년 포교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름철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 파라미타(회장 김재기)는 순천시와 함께 8월 14일 호수공원에서 '2010 순천시 문화존(ZONE) <문화야, 문화야 놀자!>'를 개최했다.

이날 청소년 문화존 행사에는 화엄석경 탁본체험, 전통부채 만들기, 탈 만들기 등 부수체험과 함께 댄스공연, 치어리더, 랩 공연,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문화체험을 선사했다.

특히 1부 공연행사에는 순천

동산여중 댄스팀과 치어리더, 순천 연합동아리의 랩 공연이 이어져 행사장을 열광의 광장으로 만들었다.

김재기 회장은 "청소년 문화존은 문화를 보고, 느끼고, 배우는 청소년문화 네트워크로 순천지역의 전통 불교문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창의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문화존 활동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파라미타가 주관한 이번 '청소년문화존'은 순천시가 청소년들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문화존을 설치하고 청소년 문화, 예술, 놀이체험의 장을 상설로 운영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전에서 찾는 삶의 방향

'어린이 인문학 서당' 무각사에서 열려



광주지역 어린이·청소년들이 8월 9일~14일 광주 무각사 문화관에서 '인문학 서당' 강의를 듣고 있다.

무각사 LOTUS문화관(주지 청학)은 8월 9일~14일까지 무각사 문화관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수유+너머와 함께하는 인문학서당'을 개최했다. 인문학 서당에는 대학교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지식공동체 '수유+너머' 연구원의 지도로 1교시 품으로 하는 공부 '요도' 2교시 고전강독 '공자와 배움'

3교시 독서토론이 진행됐다. 고전강독에는 '공자는 누구인가' '공자와 공부' '공자는 어떤 책을 읽었을까' '공자의 성격은 어땠을까' 등 다양 주제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3교시 독서토론에는 옛날 시,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업장의 범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범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망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편을 한지붕 밑에서도 좋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운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부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혼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범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불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고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 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시당, 기드,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양식,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보험사무소, 인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을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범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범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범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범구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 지않고 고통만 준다. 범구,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범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범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목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 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 락,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역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범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 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 45,000원 (사찰 공금 가격 별도 상담)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